

'익산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첫발

구인기업·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종합 서비스 제공 ... 효과적인 취업 지원 '기대'

익산시가 지역의 모든 일자리를 한 눈에 담은 '익산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익산상공회의소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센터 △원광대·원광보건대학교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추진 방향과 사업 수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완성도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익산의 구직자와 기업 간의 직접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고용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일자리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이다.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취업을 지원 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 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플랫폼은 지역 내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인 기업 홍보영상과 자기소개 영상을 통한 '쌍방향 보이는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게 일자리 정보를 통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1월 (구)익산시청 제2청사에 개소 예정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와 연계해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지역 내 구인·구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영유아 위한 '함께 해요! 하림치킨로드'

익산시-하림, '지역 기반형 하림치킨로드 투어 체험' 추진 맞춘

익산시가 종합식품기업 (주)하림과 손잡고 지역 영유아들에게 이색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반형 하림치킨로드(HCR) 투어 체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험은 익산시의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가 지역 주도 유아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소재 기업과 연계한 현장 체험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하림치킨로드 투어는 영유아들에게 친숙한 닭고기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림의 최철만 도계·가공시스템을 견학하고, 닭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해



만들어지는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시식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영유아들에게 식품 생산의 중요성과 위생 관리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기업 홍보 효과로 (주)하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치킨로드 투어가 지역 영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상생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산업 선도 전걸음

동물용의약품상용화기술연구조합과 협력 강화

익산시가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이끌 중심 도시 도약에 나선다.

시는 (주)동물용의약품상용화기술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 기술 상용화 등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조합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 과제에 선정된 우진비앤지(주)가 관련 기업, 대학과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 최초로 설립한 조합이다. 기업은 우진비앤지(주)와 △녹십자수의약품(주) △미라클스코프(주) △(주)유틸텍스 등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하고, 대학은 전

북대와 부경대가 함께한다.

연구조합 사무실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내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에 위치해, 익산시가 추진하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시는 연구조합,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과 함께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와 향후 구축될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인수공통연구지원보존센터 등과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3년 연속 선정

원광대·원광보건대·한국폴리텍대·하림산업 등과 18개 강좌 운영

익산시가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원하는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도비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 부분 캠퍼스를 맡고 시군에 특성화 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주)하림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강좌 18개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평생학습관(063-859-51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봄맞이 특별 환경

정비 기간... 14일까지 운영

정현을 익산시장의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를 주문했다.

정현을 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는 청결 상태와 안내자료 비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특히, 출입구와 복도 등에 불필요한 포스터나 적재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민원인의 동선을 따라 직접 움직이며 불편한 환경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클린데이(Clean day)'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오는 14일까지를 특별 환경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익산 전역에서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 시장도 주민들과 함께 금마면을 찾아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에 동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14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거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번에 운영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PP)'은 올해 법무부에서 신설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으로 수강 대상자는 E-9(비전문취업인력), E-10(선원), H2(방문취업), F3(동반가족) 체류자격 소지자이다.

또한 시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체류자격 비중이 가장 높은 비전문취업인력(E-9)에게 장기체류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숙련기능인력(E-7-4)로의 비자전환 기회를 마련해 준 점도 그 의미가 크다. 교육은 매주 토요일(9시~13시)에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신청은 3월 14일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수강 희망자는 군산시 인 구대응담당관(☎063-454-2682)이나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3-454-263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발전 위해 민·관·학 '머리 맞대'

'2026년 국가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강임준 시장 "예산 최대 반영 위해 행정역량 집중"



군산시가 10일 지역발전을 위한 '2026년 국가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강임준 시장 주관으로 부시장과 국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군산대, 호원대 등 관내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지역발전 국가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군산시는 2026년 국가예산 발굴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 △신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기반 시설 조성, △사회 기반 시설 및 자연 재해 대응 등 총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24건에 총사업비 1조 6,30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다.

군산시에서 발굴한 주요 사업은 △군산형 공공위케어 시범사업, △새만금 동서 1축 10차로 확장, △해양무인 이동체 O&M 기반 시설 구축,

△군산 산복동 화석 산지 전사관 건립, △수산물단지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나운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팩류 사업다각화지원 시범사업 등이다.

이어서, 관내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제안한 국가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플라즈마 산업 협력 지구 구축(안) △군산 해양레저지구관 광 2030 △K-컬처·세계로 미래로 △군산시 실내 생물발광 전시 △군산시 철도 및 대중교통 추진 전략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들은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정차권 공조를 강화하여 예산변역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어, 신규 국가예산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군산시에서는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